

# 목포항구축제... '파시' 체험해 보세요

오늘부터 사흘간 삼학도 일원

글로벌 항구 도약 청사진 제시

콘서트·미식 페스타·난영가요제

'2024 목포항구축제'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목포항구축제는 2024~2025년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오감만족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항구축제에서는 과거 바다 위에서 열렸던 생선 시장인 '파시'를 축제의 주요 주제로 선정해 목포항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낼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11일 오후 5시 20분 디스코파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를 항구축제는 글로벌 퍼레이드와 함께 만선 배가 입항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연출한다.

이를 통해 목포항의 번영과 만선을 기원하고, 항구에서 시작되는 목포의 밝은 미래를 제시할 전망이다.

또 전통 파시를 더욱 돋보이도록 구성된 올해 축제는 목포항을 따라 세대별로 파시존(2060), 항구존(7080), 청년존, 현대존 등 4개 공간으로 나눠 진행되며, '목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글로벌 파시'를 연출하게 된다.

'파시존'에서는 전통 파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파시 장터에서 경매받은 수산물을 직접 구워 먹는 구이터와 어물전 수라간 등이 운영된다.

'항구존'은 목포의 근대역사와 70~80년대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항구 버스킹, 항구도야호(건막제법), 청년창업부스 및 음식부스로 꾸며진다.

'현대존'과 '청년존'에서는 낭만한끼, 청년항구볼, 체험부스, 선장어린이놀이터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체험형 공간으로 운영해 목포항의 낭만과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제철 수산물을 목포만의 맛과 멋으로 즐길 수 있도록 목포 미식페스타가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품격있는 밥상', '3인 3색 스페셜 쿡' 등 입맛을 돋우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2024 목포항구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축하공연 ▲바다콘서트 ▲목포항구음악회 ▲난영가요제가 축제기간 매일 오후 8시부터 진행돼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축제의 장을 열어가길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파시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분래 취지는 부각시키면서 차별화된 콘텐츠와 공간 구성으로 젊은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 완도군, 창작 판소리 '세계인 장보고가' 공연

완도군은 최근 창작 판소리 '세계인 장보고가(曠)' 공연(사진)을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인 장보고가는 2019년 완도군의 지원으로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일대기를 철저한 고증에 해석을 더해 창작판소리연구원(현 민족예술장작원 마당판) 임택 명창에 의해 제작됐다. 2019년 시연 이후 2020년까지 완도, 광주, 서울 등지에서 총 10회의 공연을 하며 완성도 높은 사설과 뛰어난 작창, 관중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호평받아왔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국내외 여러 사정으로 공연이 중단됐다.

이번 공연에 '21세기 장보고'로 인증하는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 4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군에서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창작 판소리 활성화를 위해 완도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소리 대목 배우기'를 포함하고 발표회, 경연 대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세계인 장보고가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이 한 대목을 기억하고 부를 수 있길 바란다"면서 "장보고 대사의 선양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해남군 퀴즈로 푸는 청렴골든벨...공직자 청렴 의지 다졌다

옥천면 최정혜 주무관 골든벨

해남군이 공직자 대상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열고 청렴을 다졌다.

해남군에 따르면 반부패 법령 등 청렴 관련 문제를 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직자 청렴의 되새기는 색다른 자리가 지난 7일 군청에서 열렸다.

각 부서에서 1~5명씩 총 100명의 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 골든벨은 옥천면 최정혜 주무관이 올렸다.

이번 행사는 기존 강사 교육과 달리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으며 동료 직원을 응원하며 청렴 소통 문화를 확산했다.

해남군은 청렴 향상을 군정의 역점과제로 부서 특화 청렴정책 추진,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강화, 익명 신고전화 '군민의 소리' 운영, 청렴음악 활용, 청렴 서한발 발송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펼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재밌고 즐겁게 반부패 법



청렴 골든벨 올리는 최정혜 주무관.

령을 익히기 위해 다양한 청렴교육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군정으로 더 나은 해

남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진도군의회 주민숙원사업비 사적 사용 논란

의원 측근 마당 포장·친척 담장공사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공익적 목적과는 달리 측근들의 사적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책정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9월 주민숙원사업으로 2000여만원을 투입해 고군면 오산마을

농경지 농로 포장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한 곳은 진도군의회 K의원의 측근이 목사로 있는 고군면 소재 한 교회의 사유지 포장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의회 B의원은 지난 6월 '마을 정비공사' 명목으로 친척 집 담장공사를 지시했고, 실제로 사업비 800여만원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하는가 하면, 강압에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공식적인 예산 항목

에는 없지만, 군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편법적인 예산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 P씨는 "군의원들의 지시가 있는데 하위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겠냐"라며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고충을 토로했다. 또 일부 군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운운하며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때도 있어 불편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지역민들의 공공성과 시급성을 따져가며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군민의 혈세를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

#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 자치구의회의장협 수석 부회장에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이 지난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상주 의장은 지난 7월 전라남도시군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전남 지역을 넘어 전국 기초의회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앞장서게 됐다.

이상주 의장은 "전국 기초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중론을 모아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 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하여 수석 부회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00년 3월 설립되어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 그리고 지방의회 간 정보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제9대 후반기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상주(왼쪽) 신안군의회의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류 및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 운영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영암도서관 김수영 작가 초청 인문학 강좌

16일...수강생 선착순 80명 모집

영암군이 오는 16일 영암도서관에 아동문학박사인 김수영 동화 작가를 초청해 '2024년 제6회 인문학 강좌'를 연다.

'그림책에서 나를 만나다'가 주제인 이날 강좌는 다양한 그림책을 인용해 정신분석학으로 나의 삶과 욕망을 통찰해 보는 시간이다.

김 작가는 2011년부터 학교·도서관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나를 알고 싶어서 그림책을 펼쳤

습니다. '내 이름은 쿠키마' '사랑해 언니 사랑해 동생' 등을 펴냈다.

인문학 강좌 수강 신청은 영암군민 누구나 할 수 있고, 선착순 80명 수강생을 모집한다.

박혜영 영암군 문화예술과장은 "내가 왜 인정받고 싶은지, 성공하지 못해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다"며 "올해 마지막 인문학 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